

24 朝鮮の山水 조선의 산수

1947년 / 최남선 / 116면 / 08.10-01 최191조 1947

이 책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선생의 강연집이다. 1947년 10월에 출판한 116면의 책자인데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白頭山 勤贊記(백두산근찬기)』와 『朝鮮遊覽歌(조선유람가)』 및 『朝鮮常識問答(조선상식문답)』과 더불어 육당 선생의 국토에 찬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은 서문에서 “말솜씨가 없어 강연은 되도록 피하여 왔는데 라디오란 것이 생긴 이래 이래저래 끌려 다니면서 이왕이면 조선 정신과 우리 문화의 계몽을 제목으로 붙여 십 수 년간 꽤 많은 원고가 되었는데 『조선의 산수』가 그 일부다. 이것도 검열로 삭제와 변개(變改)가 많아서 원형에서 멀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6·25 후 우이동에 있는 육당 선생의 서재 하소원(下素園)을 가본 적이 있다. 선생이 3·1 독립선언문의 기초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기구한 운명으로 해방 후 친일파로 몰려 고초를 겪기도 했다.

선생이 친일파로 몰렸던 주된 이유가 부민관에 대학생들을 모아 놓고 학도병을 지원 하라는 강연을 했다는 것이다.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 강연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생은 이광수(李光洙)와는 달리 함축성 있는 말을 했다. “이 사람들아. 군대 간다고 다 죽는 거냐?”고. 훗날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준엽(金俊燁) 선생은 회고록에서 육당 선생

의 말을 상기하여 만주에 주둔 중 탈주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갔다 한다.

또한 선생은 일제가 만주건국대학의 교수로 임명하고 일조(日朝) 동조론(同祖論)을 밝히려는 요청을 받고 같은 조상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밝히느냐면서 교수직을 반납한 일도 있다 한다.

이 책은 조선의 명산과 조선의 하천, 조선의 바다와 만주의 풍경이 그 내용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남북의 경계가 추가령지구대(秋哥嶺地溝帶), 즉 경원선이 깔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남해안(南海岸)은 동래의 수두말(蠅頭末)과 전남의 해남각(海南角) 사이를 말한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선생은 고대 삼국이 다툼 것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단양의 도담삼봉(道潭三峰)은 후일 국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육당은 무궁무진한 천지조화 중에서 전기를 조금 끌어다 쓰는 것(댐)이 무슨 자연의 정복이냐, 숨이 턱에 닿아 어느 봉우리 정상에 발 좀 붙인 것이 무슨 정복이냐고 꼬집고, 신라 화랑들은 산에 오른다가 아니고 산에 든다 했고, 입산 때는 대소변을 받아 나올 그릇을 지참했다고 했다.

어쨌든 이 책은 국토를 다루는 사람의 필독서다.